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어쩌나” “서귀포 경제활성화, 6차산업 육성에 관심을”

대형사업 중수도 설치하거나 준공시점 맞춰야 주민 반발로 증설사업 표류... 예측 안돼 피해만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으로 건설사업 자들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지난해 동부하수처리장 하절기 유입 하수량 증가에 따라 1일 오수발생량 30t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거나 준공시기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시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12월 건축사회와 주택협회, 관련부서와 논의를 거쳤으며 2020년까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주민 반발로 2017년 12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어 사업자들과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은 1일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배(2만4000t)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는 중수도 처리시설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 처리한 물과 수도물 등이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배관의 색을 달리해 표시하고 중수도 이용 설비에는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1세대당 1000만원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건축사는 “행정에서 예측이 가능하게 제시해 줘야 사업자들이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할 수 있다”면서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사업 재개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준공을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행정에서 제대로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준공시점에 맞춰 하수를 연결한 후 준공허가를 받는 것으로 인허가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이전보다 공사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량이 현재 80~101%에 이르고 있다. 방류수 수질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T-P(총인) 수치가 남원하수처리장보다 높을 정도로 심각하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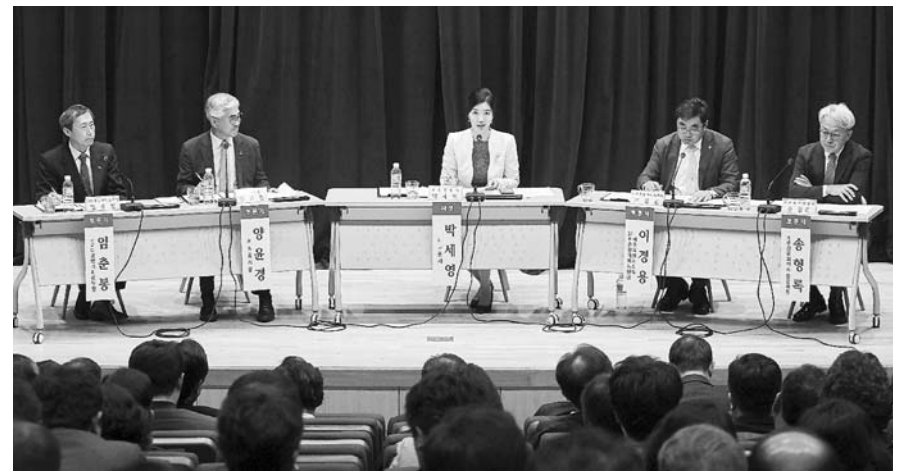
어제 2019서귀포시 경제포럼 1차산업·관광·투자 등 토론

서귀포시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주력산업의 하나인 1차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6차산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지하수 취수점 1km 안에는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프로젝트 대부분이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이지만 JDC가 제주시에 소재해 현장경영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귀포시상공회의와 서귀포신문이 마련한 ‘2019 서귀포시 경제포럼’이 26일 오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양윤경 서귀포시장,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부장, 송형록 제주상공회의소 중앙위원이 나서 1차산업, 관광산업,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에 대해 토론했다.

송형록 제주상공회의소 중앙위원은 “1차산업을 얘기할 때 6차산업 육성이 강조되는데 정작 제주에 있는 수백 개의 취수점 1km 안에는 폐수문제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며 “1차산업 보호를 위해 제주도와 정부가 함께 나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위원장도 “일본은 오래 전부터 6차산업 관련 법을 만들어 1차



‘2019 서귀포시 경제포럼’이 26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산품의 생산·제조·판매서비스를 망라한 6차 산업에 대한 용자에서부터 판매장 설치시 농지규제 완화, 절차간소화를 통해 6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6차산업을 육성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도 거론됐다. 송형록 제주상공회의소 중앙위원은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서귀포시로 이전했지만 2년만에 불편하다고 제주시로 가버렸다”며 “JDC가 다수의 핵심프로젝트를 서귀포시에서 추진하지만 사업장은 제주시에 있어 현장경영이 안된다는 것이 상당수 상공인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의료원 활성화와 관련해 양

윤경 서귀포시장은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서귀포시민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지 하는 절박한 문제”라며 “제주대병원 위탁운영 관련 용역 후 속조치로 6차협의체를 빨리 가동하고 교수진 확보, 예산·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부장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가 필요한데, 그동안 중국인 위주의 숙박시설 집중이 문제가 됐고 검증을 통해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자본 유치에 따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만만찮고,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 대기업 유치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이숙기자 ms@ihalla.com



‘시니어손맛집 찬찬찬’ 고령자친화기업 협동조합 시니어손맛집’ 개업식이 26일 제주시 한라대학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 식당은 2019년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투자지원을 받았다. 이상국기자

내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착수

제주시 내달 1일부터 돌입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50만7000여 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33만9200필지가 된다.

특성조사는 건축,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과 토지형상 및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현장 조사한다.

제주시는 최근 몇 년간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 가중 등이 있음에 따라 토지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초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시 관내 33만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접수를 받아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 하게 된다.

2019년도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0.5% 상승된 가격으로 결정·공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제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며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 온평마을 내셔널트러스트 대상

제2공항 예정지인 제주 온평마을이 2019년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 22일 서울시 내일신문 강당에서 보존 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 10곳에 대한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8개 부문 10곳에 대한 발표와 시상이 진행됐으며, 10곳 중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신청한 ‘제주 온평마을’이 대상을 받았다.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한국환경기자클럽,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후원하며 올해 17회째를 맞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2@ihalla.com

제주 혁신 스타트업 지속 투자 동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2호 조합결성 160억원 규모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혁신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혁신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2호가 조합결성을 통해 조성됐다고 26일 밝혔다. 혁신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을 일컫는다.

현재 운용중인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제1호는 지난해 9월 조성됐다. 이번에 조성되는 전략펀드 제2호는 제주기반의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기반기술분야 ▷기반기술융합분야 ▷유망서비스분야의 제주 스타트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제적 초기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펀드조성 공약실천계획에서 “펀드의

투자 한수 및 이익 배당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투자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15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제주 4차산업혁명 1호 전략펀드는 디지털 융합콘텐츠 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전략펀드 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은행 등 지역재원 20억원, 국비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 90억 및 기타 민간투자재원 50억으로 최종 결성총액은 160억원의 규모이다. 제주도 스타트업에는 지역 출자재원의 2배수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외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